

취지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목표

-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기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1

생활수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현금으로 구입한 것

2

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돋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혐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3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하늘양식으로 주간마다(혹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 시킨다.
-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 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4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모범가정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 데 힘쓴다.
-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 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5

3. 일반생활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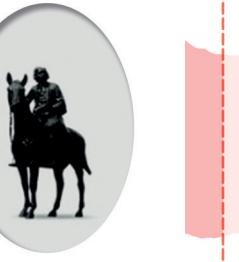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돋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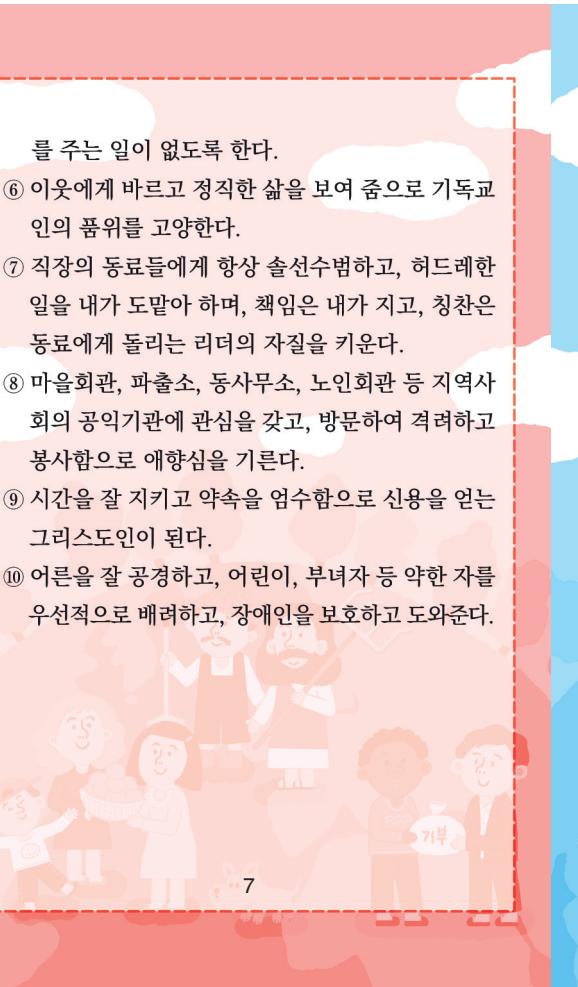
존 웨슬리
3가지 삶의 규칙

1. 남을 해하지 말라
2. 선을 행하라
3.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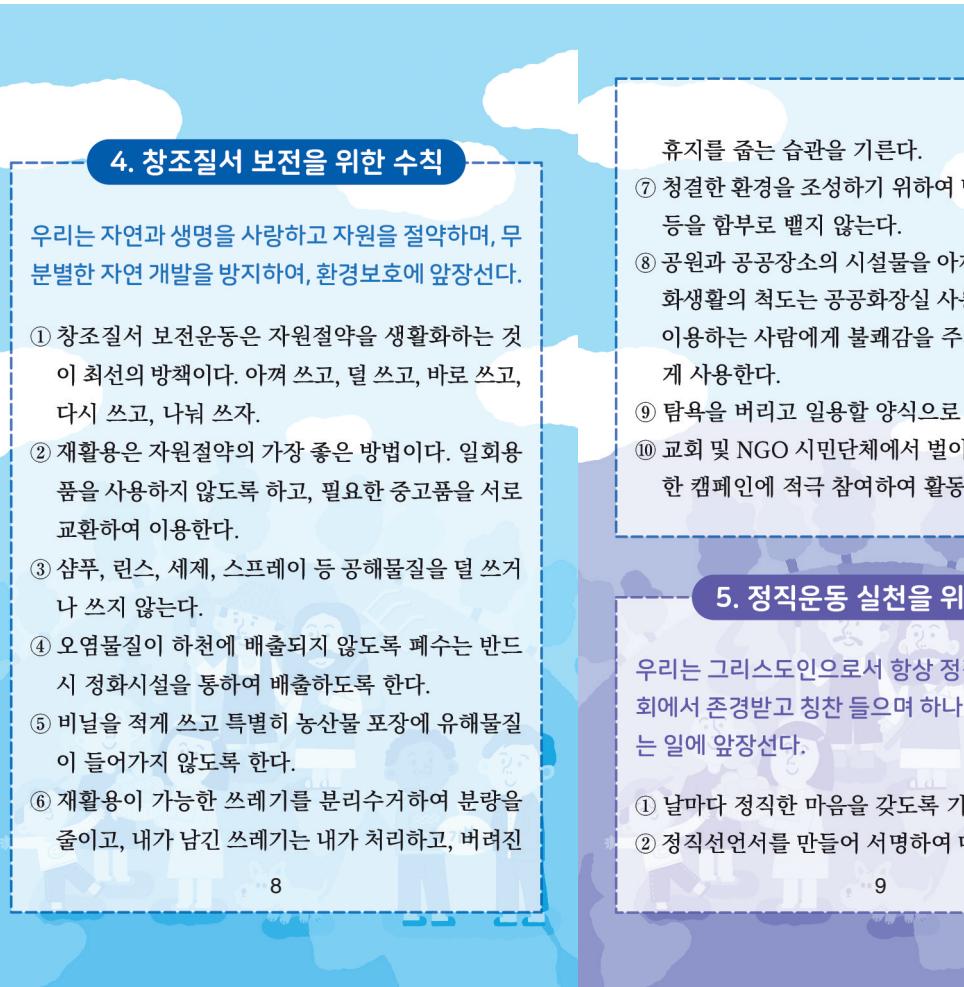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9 Fax. 399-4350



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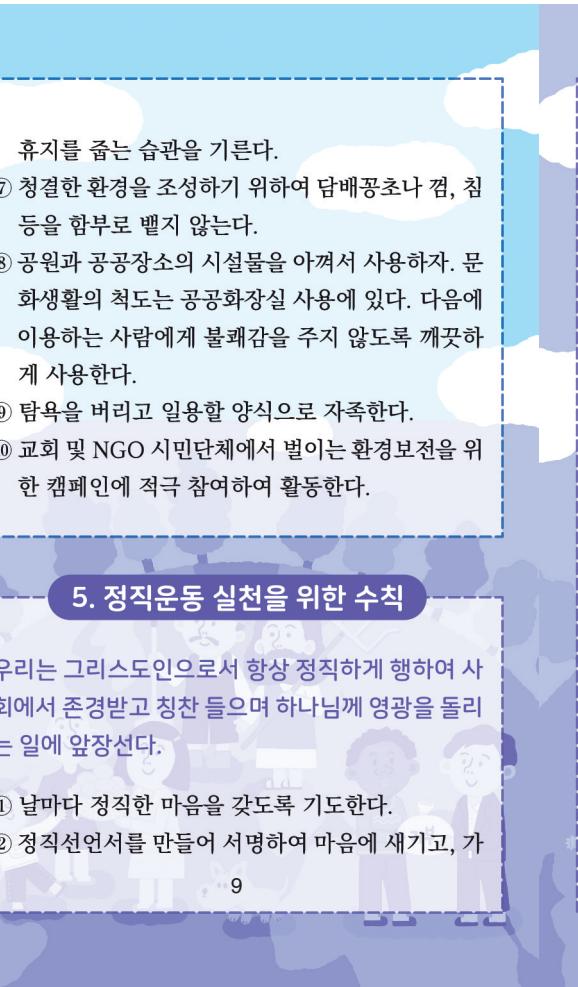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기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 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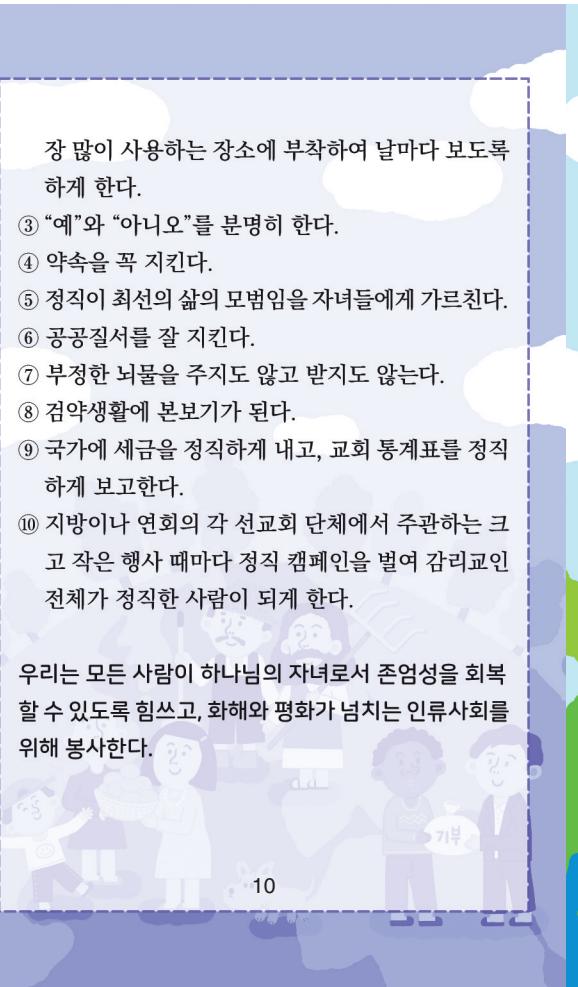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쓰고, 덜쓰고, 바로쓰고, 다시쓰고, 나눠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겸악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여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